이라크, 해외기업 지분제한 완화

FT, 유전개발 사업지분 최대 75%로 … 산유국 입지 축소의 방증

이라크가 유전 개발에 참여하는 해외 에너지기업들의 지분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가 자국의 원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서구 에너지기업들의 지분 제한을 완화했다.

이라크 정부의 지분 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BP, Royal Dutch Shell, Chevron, Total 등 서구 에너지기업들은 유전개발 사업의 지분을 현행 49%에서 최대 75%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국제유가가 약세를 이어감에 따라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산유국의 입지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해외 에너지기업들의 영향력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27>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